휘청거리는

김용숙/아.나.기(아줌마는 나라의 기둥) 대장

"아가씨 우리 집에 가서 술이나 한 잔 하고 가슈" 밤 11시경 전철역에서 지성인으로 보이는 40대 초반의 남자가 내 뒤통수에 대고 했던 말이다.

"술 먹으면 아가씨 아줌마도 모르냐! 그래, 너희 집에 가자!" 순간 화가 나서 한 말에 그 남자는 취중에도 당황하여 꽁지가 빠지게 도망가 버렸다.

지구상에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남성과 여성의 문제, 멀쩡한 부인을 두고 기회만 생기면 다른 여자를 품고 싶어하는 남자들, 여기에 심심치않게 호흡을 맞추려는 여성들이 늘어가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이해하고 싶지 않지만 남자들의 속성은 그렇다 하더라도 여성들이 이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남자들의 추악한 행동이 일방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어쨌든 요즈음 언론에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유명 시민운동가의 추잡한 행동은 딸 같은 여성의 고발로 심판받게 되었다. 이런 현상들을 성 개방, 여권신장, 또는 진보적 남녀평등으로 받아들여야하는 것이 시대적 상황이라면 이로 인해 파괴되어 가는 가정문제 특히 청소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한 국가의 세포인 가정이 지금과 같은 속도로 해체된다면 국가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른 이성에게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기 원한다. 이를 사람의 향기 또는 매력으로 표현하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진정한 매력은 절제할 줄 알며 소중히 간직할 때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지. 때문에 '끼'를 부리는 순간 매력은 천하디 천하게 되어 시궁창에 쳐 박힐 것이다.

절제된 생활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삶의 방법이며 가족 그 밖의 누구에게도 떳떳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최고의 힘일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남녀 평등이고, 정신적으로 독립하는 길이며,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행복이라고 감히 이야기하고 싶다.

도(道)는 자연의 이치를 설명하는 말이다. 예를 들어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 '여성은 아이를 출산한다' 등 인간이 원하건 아니건 자연에 존재하는 법칙을 도라고 한다. 따라서 자연의 일부인 인간도 자연의 이치 즉 도(道)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도리에 어긋난 사람' 이라고 한다. 따라서 도리(道理)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훌륭한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어줍지 않은 이야기를 늘어놓은 것은 외도(外道)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서다.

결혼이란 남녀가 일대 일로 짝을 지어 안락한 삶을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인간 스스로 선택한 제도이다. 그러나 색욕에 미혹되어 때때로 이 틀을 깨고 싶어하는 것도 바로 그들이다. 외도는 도를 벗어나는 인간의 대표적인 행동이다.

따라서 인간으로서 해서 안 될 짓이고 조금의 양심은 있기 때문에 비밀리에 행위를 하는 것이다.

원래 동물에게 섹스는 종족을 유지시키기 위한 수단이며 이것이 자연의 이치 즉 도리라는 것이다.

외도는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대부분 남자에게만 해당되는 단어였었다.

그러나 요즈음 부쩍 남녀공동의 단어로 발전되어 가는 현상을 여성들의 지위 향상으로 인식해야 할지 여성인 나도 판단이 서지 않는다. 부정적인 남녀평등은 오히려 아줌마 더 나아가 모든 여성들의 위치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지도 모른다.